

『적』과 <사랑의 추억>에 나타난 남녀 정신발달상의 공통점과 차이점

오정민

1. 들어가는 말

니콜 가르시아에 의하여 영화화¹⁾되기도 한, 엠마뉴엘 카레르(Emmanuel Carrère)의 소설 『적』²⁾의 남주인공은 자신이 세계보건기구의 의사라고 거짓말하며 15년 이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행세하다가 진위가 들통나려 할 때 아내와 아이들을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을 기도하다 살아난다.

오정민 덕성여자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 1) 남녀의 차이를 다루는 우리의 연구주제와 관계는 없지만, 다음 사실은 흥미롭다: 니콜 가르시아(Nicole Garcia)라는 여성감독은 이 영화를 위하여 자크 피시(Jacques Fieschi), 프레데릭 벨리에-가르시아(Frédéric Béliet-Garcia)라는 두 남성과 함께 시나리오 작업을 하였다. 영화 <사랑의 추억>의 프랑수아 오종(François Ozon) 남성감독은 엠마뉴엘 베른하임(Emmauèle Bernheim), 마리 아 드 반(Marina de Van), 마르시아 로마노(Marcia Romano)라는 여성들과 함께 시나리오 작업을 하였다. 이는 여성감독이 남성의 내면세계를 잘 연출해 내었고 남성 감독이 여성의 심리를 어떻게 그리 잘 알 수 있었느냐 하는 질문에 답이 될 수 있을까?
- 2) Carrère, Émmanuel. *L'Adversaire*. Paris: Éditions P.O.L. éditeur. 2000. Gallimard, 2003.

프랑수아 오종(François Ozon)의 영화 <사랑의 추억>(Sous le sable, 2000)에서는 여주인공과 같이 휴가 떠난 남편이 갑자기 실종된다. 이러한 남편의 죽음 이후에도 어쩐지 남편은 계속 자신의 아파트에서 살아있다.

이질적으로 보이는 두 사건에서 남, 녀 주인공 사이에 공통점이 보인다. 『적』의 남주인공은 의과 2년차의 시험에 출석도 안하였으므로 의사가 되지 못했다는 좌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목적이었던 그 이상적 직업에서 심리적으로 벗어나지 못한다. <사랑의 추억>의 여주인공 역시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편과 연관된 과거의 행복에서 심리적으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현실부정의 자세에서 보듯, 남자이건 여자이건 공통적으로 리비도 대상을 이상화하는 성향을 보이고, 좌절 후 그 다음의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퇴행(régession), 과거 기억에의 고착(fixation)을 보인다. 또한 불안(angouisse)에 따른 방어(défense)로 남자는 거짓말을, 여자는 환상이라는 수단을 택하고 있다. 이는 잃어버린 사랑의 대상을 회복하고 만회해야 하는 필요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심리 기능상의 특징은 어릴적의 오디푸스 콤플렉스에 그 원형이 이미 존재한다. 그리스 신화의 인물인 오디푸스의 행적에서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을 알아보고 프로이드가 명명한 ‘오디푸스 콤플렉스’는 우리의 두 주인공의 경우를 분석해 보았을 때 그 심리적 작용방식과 양상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프로이드가 병적인 증상을 지닌 사람과 소위 ‘정상인’ 사이의 경계를 없앴 듯³⁾, 멜라니 클라인(Mélanie Klein)은 아이들의 정신분석학을 통

3) 장 클로드와 마리의 경우는 사기나 환각의 정도가 엄청난, 병리학적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위 정상인과 환자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그어야 하는가? 엠마뉴엘 카레르 자신도 소설 『적』에서 친구들에게 허세, 허풍 식의 거짓말을 했던 경험을 말한다. 그러한 성향은 정도의 차이가 문제 되는 것이며 누구에게나 있는 면이다. 단, 인간 본성의 특정한 요소(들)이 극단적으로 치달은 경우에서 우리 자신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두 작품 『적』과 <사랑의

하여 아이와 성인 사이의 무의식의 구도가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멜라니 클라인은 특히 여아의 오디푸스 콤플렉스의 경우를 더욱 연구하여 프로이트 이론을 보충하고 있다. 그리하여 남아의 오디푸스 콤플렉스가 여아의 그것과 다른 점의 상당 부분에서 『적』의 남주인공과 〈사랑의 추억〉의 여주인공의 정신기능상 차이점이 밝혀짐을 보게 된다.

2. 장 클로드 로망과 마리의 공통점 - 전(前)생식기의 특징들

“유아 때의 여러 발달 단계는 잠재적 상태로 계속 활동 중이다가 인생 전체에 걸쳐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다시 나와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Le complexe d'Oedipe* 25)는 것이 멜라니 클라인의 심리 작용 모델이다.

『적』의 장 클로드 로망(Jean-Claude Romand)과 〈사랑의 추억〉의 마리(Marie)는 공통적으로, 충격적인 외부 상황에 대한 반응 상 ‘정상인’의 반응과 약간 차이를 보인다. 불행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 상응하는 해결점을 모색하여 창조적, 발전적으로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않고 반대로 그러한 현실을 부정 혹은 왜곡하여 나름대로의 심리적 방어기제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젓떼기로 대표되는 구순적 좌절과 깨끗함의 학습으로 대표되는 항문적 좌절은 (성인이 되어서) 이후의 모든 좌절의 원형이며 벌의 의미를 갖고 그래서 불안의 감정이 생긴다. 젓떼기, 깨끗함의 습득에서 오는 좌

추억)의 의미가 있다.

프로이트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병리학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병리학적 도움이 없었더라면 감추어진 채로 남았을 것들이 따로 구분되어지고 과장되어 결과적으로는 그것들을 잘 알아볼 수 있게끔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Freud, *Introduction à la psychanalyse*. Paris: Payot, Collection Petite bibliothèque, 2001.)

절(frustration, 실망, 낙심, 욕구불만)에서부터 오디푸스적 경향이 생긴다. 이것은 1살 마지막 무렵 혹은 2살 초기에 (프로이드에선 3-5살 사이에) 발생한다”(Mélanie Klein, *Le complexe d'OEdipe* 29).

장 클로드와 마리가 인생의 좌절을 당하여 보이지 않는 죄의식과 불안의 감정에 휩싸였으리란 짐작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인생시련에서 나오는 충격은 젖떼기나 깨끗함의 습득 시의 충격과 같은 정신적 구도로 반응되는 것이다. 즉, 아동기 이후의 좌절이 이야기하는 고통에 대한 반응은 이미 아동기 때의 좌절시 마치 지도가 그러지듯 심리적으로 구도화 되는 것이다. “이후의 좌절이 이야기하는 고통의 대부분은 바로 이 아동기 때의 좌절에서 야기된 씩씩한 감정에서 연유하는 부분이 크다. 성적 호기심이나 오디푸스적 경향에 의해 덮쳐졌을 때 아이는 자아가 아직 발달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불안의 여파가 더욱 크다. 우울증적 주체의 근본적 불안, 그 불안은 어린 시절의 우울증적 입장에서 발원, 유래한 것이다.”(*Le complexe d'OEdipe* 26)라고 클라인은 쓰고 있다.

그녀는 남아인 리샤르(Richard)와 여아인 리타(Rita)의 오디푸스적 발달을 추적하여 불안이란 요소가 감소되어야 오디푸스가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동의 경우, 오디푸스적 발달이 혼란되면 전생식기에서 생식기로 넘어가는 전환 -생식기적 구성-이 견고히 자리잡을 수 없게 된다. 유아 초기에 불안적 상황에 대처하는 작업이 방해받아 막혔을 때 아이의 리비도적, 감성적 발달, 즉 자아의 발달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Le complexe d'OEdipe 122). 그리하여 아동기 때 맞이하는 이러한 변화는 이후의 좌절에 정신구도상 모델이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비슷한 강도의 전환적 사건에 부딪혔을 때 같은 구도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단, 그 불안과 긴장을 극복해 나아가는 양상은 개인마다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리고 장 클로드와 마리의 경우 본 지면에서 각 인물⁴⁾의

4) 이 때 픽션임을 전제로 하는 '인물' 대신 실지로 존재하는 '개인'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듯하다. 정신분석의 대상은 허구(fiction)작품 내의 인물이라기 보단 현

아동기를 추적한다기 보다는, 성인이 되어 보이는 기이한 행적의 원인을 오디푸스적 발달상의 특징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1) 손상, 좌절에 대한 만회

전(前)생식기 단계에서, 어머니 젖에 대한 좌절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무의식적 구조는 이후 성인이 되어서 좌절을 느낄 때 같은 심리적 구도로 작동할 가능성을 보인다. 클라인도 지적하듯, 어머니 젖과의 관계는 성적, 감성적 발달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핵심적 요소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만족하기 위한 새로운 근원을 탐색하는 일은 리비도가 앞으로 전진하는 발전적 움직임이다. 어머니의 젖을 통하여 느낀 만족감으로 인하여 신생아는 새로운 욕망의 대상물(일차적으로 아버지의 페니스)로 향하게 된다. 젖떼기를 통하여 경험한 좌절은 새로운 욕망으로 특수하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이때의 좌절은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경험(충분치 못한 수유나 이유기)도 있지만 내적인 요인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즉,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공해 주었다라도 어느 정도의 좌절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아이는 무한정한 충족을 원하기 때문이다”(Melanie Klein, *Le complexe d'Oedipe* 125). 즉, 우리 모두는 유아기 때 어느 정도의 좌절을 경험하였다. 그런데 그 좌절을

실의 각 개인이기 때문이다. 물론 픽션의 인물 또한 현실의 예를 훌륭히 구현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다. 또한 장 클로드 로망을 소개로 한 소설 『적』은 주인공이 스위스의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하여 쓰여진 작품이므로 객관적 임상의 예가 될 수 있는 점이 있다. 장 클로드 로망 본인이 카레르의 소설을 읽고 난 후 “몇몇 가정들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작품 자체는 정작하다고 인정했다.” (Émmanuel Carrère, *L'Adversaire*, Paris, Gallimard, 2003, 12) 그리고 영화 〈사랑의 추억〉 역시 감독 자신이 실제로 보고 들은 해변가에서의 사고를 바탕으로 상상된 작품이다. 창조된 인물 역시 현실에서의 경우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은 또 다른 지면을 빌어 연구되어야 할 문제이다.

극복하거나 아니면 넘지 못하고 퇴행적 방어기제로 회피하는 것은 분명 개인적 차이이다. 그리고 그 기제는 아동기 적의 무의식 구성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출생 시부터 어린 아이는 만족했을 때 사랑하는 좋은 젖을 인식하고 좌절했을 때 싫어하는 나쁜 젖으로 인식하게 된다”(Mélanie Klein, *Le complexe d'OEdipe* 125). 남편과의 만족스런 생활 중 일어난 죽음이나 의사가 되지 못했다는 좌절은 심리상 “싫어하는 나쁜 젖”에 맞닥뜨리는 것과 같은 구도로 작동된다. “좌절에 맞서야 할 필요성과 거기서 나오는 공격성으로 인하여 아이는 좋은 젖과 좋은 어머니를 이상화시키고 이와는 평행적으로 나쁜 젖과 나쁜 어머니에 대한 미움과 두려움으로 이르게 된다. 그 나쁜 젖과 나쁜 어머니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모든 박해적 대상물의 원형이다”(Mélanie Klein, *Le complexe d'OEdipe* 125). 마리는 휴가 이후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중에 남편의 실종 직후 탐색작업에 참여했던 구조대원이 있음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수업이 끝난 후 그 학생이 다가와 얘기를 건네자 마리는 매우 공격적으로 완강하게 사실을 부인한다. 거기에는 남편의 죽음을 인정해야 하는 ‘나쁜 젖’의 세계에 대한 강렬한 미움을 담고 있다. 남편의 죽음은 어머니의 좋은 젖과 분리되는 좌절의 경험이다.

“이전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겪었던 좌절로 인하여 만족의 새로운 근원에 대한 희망과 요구 사항이 더욱 더 커진다. 그리하여 새로운 대상물에 대한 사랑을 자극한다”(Mélanie Klein, *Le complexe d'OEdipe* 125). 어쩌면 마리가 만들어낸 남편의 허상은 증가된 요구로 인하여 이전의 관계에서 보다는 더욱 더 커다란 희망의 대상일 수도 있다. 이를 대변하듯, 마리의 환상에 의하여 나타나는 남편은 죽음 이전의 무관심한 듯한 태도와 달리 표정이 더욱 더 온화하고 다정하게 연출되어 있다. 이는 “완벽하고 이상적인 대상, 사랑해 주고 사랑받는 대상에 대한 아이의 욕망은 더욱 더 증가한다. 그 대상은 아이에게 도움 받을 필요나 안전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Le complexe d'Œdipe* 126)라는 오디푸스적 발달 상황에 대한 클라인의 관찰내용과 겹쳐지는 부분이 많다.

“리비도의 발달은 그러므로 어느 순간에나 만회해야 할 필요에 의해 강화되고 자극된다.”(*Le complexe d'Œdipe* 129)라는 클라인의 지적에서 보듯, 남,녀 두 주인공은 좌절된 사랑(그 대상이 훌륭한 직업이건 사랑하는 남편이건)을 만회해야 할 필요성으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즉 무의식적으로, 나름대로의 심리기제를 고안해 낸다. 그것을 우리는 아동기의 오디푸스적 심리형성에서 그 원형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예컨대 “아이가 죄의식에 사로잡혀 만회를 하게 되면 ‘좋은 변’은 정신 속에서 자신의 ‘위험한’ 변에 의한 손상을 만회하기(réparer) 위한 수단으로 변화한다. 소년이나 소녀나 마찬가지로 (그 방식은 다르지만) 가학적 환상에서 어머니를 파괴하고 손상 입혔던 페니스는 만회의(réparateurs) 환상에서 어머니를 회복하고 치료하는 수단이 되는 것을 느낀다.”(*Le complexe d'Œdipe* 129)라는 클라인의 기록은 외부 사건에 대한 두 주인공의 자세와 그 심리구도가 많이 겹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이의 무의식 속에서 ‘위험한 변’으로 치부했던 성향은 일정한 심리 지도가 되어 성인이 되어도 어떤 리비도(여기선 두 주인공이 소망하는 것)에 반하는 사건을 당했을 때 ‘위험한 변’에 의한 손상을 만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위 ‘좋은 변’에 해당하는 성인적 대상물을 찾는다. 그것이 바로 장 클로드에게는 ‘근사한 직업’이며 마리에에게는 ‘살아있는 남편’인 것이다. 의사 시험에 출석하지도 않았거나 남편이 죽은 사건은 오디푸스적 사랑의 대상인 어머니를 파괴하고 손상 입힌 페니스에 의해 구도지워진 무의식의 어떤 면을 되살아나게 하는 계기이다. 그리하여 거짓말로 자신이 의사가 되는 것과 환상으로 남편을 살려내는 것은 ‘어머니를 회복하고 치료하는 수단’을 찾는 무의식적 정신 구조에서 나온 만회(réparation)이다.

“리비도의 충족을 주고받으려는 욕망은 그러므로 만회해야 할 필요성

에 의해 커진다. 아이는 실지로 상처입은 대상물이 그러한 방법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공격적 성향의 힘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사랑의 성향이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죄의식이 잠잠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리비도의 발전은 언제나 어느 순간에도 항상 만회를 해야 할 필요에 의해 (그리고 중국적으로는 죄의식에 의해) 자극되고 강화된다”(Mélanie Klein, *Le complexe d'OEdepe* 129). 장 클로드와 마리의, 각각 조용하거나 명량한 태도 이면에는 공격성이 숨어 있고, 리비도를 충족시키려는 욕망이 바로 거짓말과 환상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다.

2) 박탈 불안에 대한 방어

주체는 생의 초기부터, 사랑하는 대상인 객체와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에서 고도의 환상이 생산된다. 또한 사랑하는 대상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나 불안에 잠식당하면 방어를 하여 그것을 회복하려는 경향을 만들어 낸다. 이는 「유아적의 철이른 불안으로 조명해 보는 오디푸스 콤플렉스」(“Le complexe d'OEdepe éclairé par les angoisses précoces(*Le complexe d'OEdepe* 53)”)라는 멜라니 클라인의 발표에서 강조되었다. “구순적 좌절(젓떼기), 항문적 좌절(깨끗함의 학습)은 성인이 된 이후의 모든 좌절의 원형이며 벌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불안의 감정이 생긴다. 생애에서 이후의 좌절이 야기하는 고통의 대부분은 바로 이 아동기 때의 좌절에서 야기된 씩씩한 감정에서 연유하는 부분이 크다”(*Le complexe d'OEdepe* 32).

“불안, 그리고 그 불안에 대한 특수한 방어 양식이라는 두 입장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망설이는 주체에게 있어, 불안은 방어 없이 존재하지 않고 방어 역시 불안을 제외할 수 없다”(Mélanie Klein, *Le complexe d'OEdepe* 25). 그리고 “여성이건 남성이건 불안; 강한 구순/가학적 성

향; 긴장을 견디는 힘이 약함이란 세가지 요인은 어떤 외부적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점차적으로 방어기제를 만드는 일을 방해한다. 유아 초기 시기에 불안적 상황에 대처하는 작업이 방해받으면 아이의 리비도적, 감성적 발달 즉 자아의 발달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Le complexe d'OEdepe* 22)는 것이다.

“불안, 죄의식, 우울증적 감정은 리비도 발전의 모든 단계에서 작용한다. 아이의 우울증적 감정의 핵심, 즉 미움과 공격성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대상을 잃을 것에 대한 공포는 처음부터 대상물과의 관계의 부분, 오디푸스 콤플렉스의 부분을 이룬다”(Melanie Klein, *Le complexe d'OEdepe* 128). 마리에게 남편의 죽음은 아무리 생각해도 실감나지 않는다. 그것은 남편을 잃을 것에 대한 공포와 그에 대한 방어작업이 이미 작동한 결과이다. 즉, 잃어버린 사랑의 대상을 회복, 만회해야 할 필요성에 방어기제는 계속되고 그것이 사랑을 강화시킨다: “죄의식에 떠밀려, 어린 아이는 가학적 성향의 효과를 리비도적 수단으로 파괴하도록 강제된다. 만회해야 할 필요성이 그의 사랑을 강화시킨다. [...] 가학적으로 전능하다는 느낌에 만회에 대한 전능함의 느낌이 대응된다”(Melanie Klein, *Le complexe d'OEdepe* 128). 장 클로드 역시 전능하다는 느낌으로 자신을 이상화함으로써 자신의 비밀스런 좌절을 만회한다. 그리고 이상적인 직업을 잃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에 대한 방어로, 끊임 없이 거짓말을 유지해 나간다. 신용카드의 사용불능에 맞닥뜨렸을 때나 새로운 아파트를 보러 갔을 때에도 마리는 태연히 남편과 상의해 보겠다고 말한다. 죽음 이후에도 생각만 하면 언제든지 남편이 나타나는 일은 가히 만회에 대한 전능함의 느낌에서 나온 환상이다.

3) 퇴행, 고착

프로이트의 오디푸스 콤플렉스를 멜라니 클라인은 자신의 임상 경험

으로 수정하고 더욱 풍부히 하여, 여아의 오디푸스 콤플렉스를 혁명적으로 개척하였다. 그리하여 “어린 소녀와 어머니와의 복합적 관계는 이후 소녀가 여성이 되어 이를 커플 사이의 관계를 조명해준다.”⁵⁾ 왜냐하면 여성에게 있어 남편은 항상 그리고 동시에 욕망하는 것을 주는 어머니, 사랑하는 아기를 주는 어머니이기 때문이다.”(*Le complexe d'OEdipe* 24)라고 밝혔다.

선적이고 시간적 연속으로 펼쳐지는 프로이드 식의 발달단계가 아니라, 클라인에 따르면 심리의 구축은 진보, (기억의) 고착, 퇴행, 새로운 타협 등이 끊임 없이 일어나면서 이루어진다(*Le complexe d'OEdipe* 25)고 한다. 두 주인공의 경우 성인으로서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지만(진보), 남편에 대한 기억에의 고착, 자신이 시험에 통과했어야 한다는 과거 기억에의 고착을 보인다. 실망과 좌절 앞에서 대체적 욕망 대상을 취하고 유아기적 심리경향을 반복하는 일종의 퇴행을 보이며 그것은 새로운 타협(나는 의사이다/ 남편은 살아있다)으로 나타난다.

남편의 죽음이란 사건이 야기하는 긴장을 견디어 낼 힘이 없는 나머지 마리는 마치 남편의 죽음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생활한다. 이는 멜라니 클라인이 말하는 오디푸스적 심리구도가 성인이 되어서도 그 재료만 달리할 뿐 무의식적으로는 같은 구도를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불안과 죄의식이 서로 서로 작용해 지배적인 상태에서 리비도 구성상 철이든, 이전시기 단계에로의 고착이 과도하게 일어난”(Mélanie Klein, *Le complexe d'OEdipe* 123) 경우이다. “그 결과로 오디푸스적 발달이 혼란되어 생식기적 구성이 견고하게 자리잡을 수 없게 된다. 리샤르와 리타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유사한 경우에서도 이러한 불안이 감소되어야 오디푸스 콤플렉스가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Mélanie Klein,

5) “오디푸스 콤플렉스의 역사적 시간은 결정적인 순간이다.” (Wladimir Granoff, François Perrier, *Le désir et le féminin*, Paris, Champs Flammarion / Aubier, 1991, 50)

Le complexe d'OEdipe 123). 아동기 때에 겪는 이러한 무의식적 발달 단계 상의 장애는 성인이 되어서도 같은 심리적 구도로 작동할 수 있다. 즉, 남편의 죽음이라는 사건 이후 정상적 일상의 전개가 속박되어 퇴행이 일어난 것이다. 장클로드 역시 과거의 목적이었던 그 이상적 직업을 15년 이상 유지해 나가는 퇴행, 고착을 보이고 있다.

클라인에 의하면 “인생의 초기부터 리비도는 불안을 생산하는 공격성과 얽혀 있다. 이 불안은 리비도 발전의 모든 단계에서 깊게 작용한다. 불안, 죄의식 그리고 우울적 감성은 어떤 때에는 리비도를 더욱 멀리 몰고 나아가 만족의 새로운 근원으로 몰고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한 물체나 지난 날의 목적에로의 고착을 강화시킴으로써 리비도의 발전을 저해하기도 한다”(Le complexe d'OEdipe 124). 해변에서 혼자 돌아온 마리는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에서 명랑한 태도를 보이지만 매일 아침 찬장을 열고 컵을 하나만 꺼내야 함을 느낄 때에는 형언할 수 없는 우울함을 느낀다. 이 때 나타나는 환영의 남편은 생전에는 좀처럼 보이지 않던 미소까지 따우며 앉아 있다. 이러한 환각은 마리가 리비도를 병리적으로 더욱 멀리 몰고 나아갔음을 증명하고 있다. 장 클로드는 단지 의사가 된 것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나 애인선물에 지나친 돈을 쏟아 붓거나 다정한 남편, 자상한 아버지, 진실한 친구 등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는 것으로써 리비도를 멀리 몰고 감을 볼 수 있다. 어쨌든 두 주인공의 경우 모두 과거의 목적에로의 고착이며 그럼으로써 인생 단계상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

3. 마리와 장 클로드 로망의 차이점 - 생식기의 특징들

장 클로드의 거짓말이 자신에 관계된 것이라면 마리의 환각은 상대방

에 대한 것이다. 즉, 장 클로드가 자기자신에 대한 나르시시즘의 경향을 보인다면 마리는 상대에 대한 경탄의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출발하여 오디푸스 콤플렉스적 발달을 통하여 보면 보다 상세한 차이점과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 『적』에서 장클로드의 경우

구순적, 항문적 입장을 버리고 생식기적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면 남이는 페니스 소유와 직결된 삽입의 입장을 목표로 상징한다. 그리하여 남이는 리비도적 입장을 바꿀 뿐 아니라 그 입장의 목적까지도 바꿈으로써 사랑하는 초기 대상(즉 어머니)을 유지한다.

반대로 여아는 그 수용적 목표가 구순적 입장에서 생식기적 입장으로 옮겨질 뿐이다. 여아는 리비도적 입장을 바꾸지만 그 입장의 목적은 계속 유지하게 된다. 그런데 그 리비도적 입장의 목적으로 인하여 소녀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이미 실망한 바 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여아에게는 페니스에 대한 수용성이 생기게 되고 이제 여아는 사랑의 대상으로서 아버지에게 향한다.

무의식에 관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시기에 제기되는 질문들은 의식되지 못하거나 의식된다 하더라도 언어로 표현될 수 없다. 또한 아이는 언어와 단어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아이의 초기 의문점들은 언어의 이해 이전의 일이다.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불평의 씨가 미움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두 성에 있어서 다, 이 모른다는 느낌은 거세 콤플렉스를 강화시킨다. 남성, 여성 양성에 있어서 다, 인식하길 좋아하는 욕동과 취득하려는 욕망이 연계된다. 그 둘은 오디푸스적 갈등의 출현과 함께 일어난 죄의식과도 연계된다. 이는 어머니와의 철이른 동일성의 단계가 된다. 가학-구순적 입장과 가학-항문적 입장으로, 아기는 엄마를 조각내고 잡아먹고 파괴함으로써 엄마의 대변을 소유하려 한다. 즉 항문기적

성향이 가학적 성향과 혼합되는 것이다.

생식기적 경향에서 남아는 사랑의 대상으로서 어머니에게 향하는데 가학적 성향은 여전히 남아 가동되고 이전의 좌절에서 나온 미움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 생식기적 수준에서 대답한다. 오디푸스적 경향과 함께 나오는 거세 공포가 이 사랑에 더욱 더 장애가 된다. 이 생식기적 입장에 도달하는 정도에 따라 불안을 견디고 이겨내는 능력이 좌우된다. 우리는 장 클로드와 마리의 경우 좌절에서 나온 불안을 견디고 이겨내는 능력이 충분치 않음을 볼 수 있다.

(1) 여성성 콤플렉스 - 자신의 페니스를 과대평가함, 여성과의 경쟁의 반사회성

장클로드의 거짓말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남성들에게서 자신의 능력을 과대 선전하는 경향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을 멜라니 클라인이 발견한 ‘여성성 콤플렉스’(Le complexe d'Œdipe 33-40)를 통하여 조명해 보도록 하자.

어머니의 대변은 그리도 탐내던 아기를 상징한다. 어머니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는 욕망은 아기도, 대변도 같이 겨냥함으로 나타난다. 아기를 가지려는 욕망은 아기를 제것으로 삼는 목표를 낳는다.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이 올 것이라고 예감했었는데 정작 그들이 옴으로 인한 질투에서 아기를 파괴시킨다. 어머니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이 ‘여성성 단계’는 여아, 남아에 공통이다.

소녀의 거세콤플렉스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년의 ‘여성성 콤플렉스’의 근원에는 특정한 기관을 소유하고자 하는 좌절된 욕망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수정, 임신, 분만을 담당하는 기관이 존재함을 소년은 직감하고, 그것을 훔쳐 파괴하려는 성향이다. 우유의 샘인 유방과 질은 구순적 리비도 입장 때부터 그 수용(收用)적 성격과 후한 기관으로 탐내던 것이었다.

가학적 고착이 지배적일수록 소년의 어머니에 대한 동일시는 여성에 대한 경쟁적 자세(미움과 부러움이 섞여서)를 내포한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욕망으로 소년은 어머니에 비하여 혜택을 덜 받았고 열등하다고 느낀다. 아이를 갖고자 하는 욕망과 인식애호적 경향이 혼합되어 소년은 지적인 측면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리하여 자신의 불리함에 대한 느낌은 감추어지고 ‘나는 페니스를 소유했다’는 사실에서 이끌어내는 우월감으로 과대보상된다. 남성적 입장에 대한 이러한 과대평가는 남성성 확인의 과도함으로 이어진다. 메리 차드윅⁶⁾ 역시 남성에게는 페니스의 나르시시적 과대평가가 있어 여성에 대한 지적인 경쟁 태도를 보이며, 아이를 갖고자 하는 남성의 욕망이 좌절되고 그 욕망이 지적인 면으로 이전되는 점을 지적한다. 과도한 공격성을 자랑삼아 보이는 성향이 소년들에게 자주 보이는데 그 근원에는 이러한 여성성 콤플렉스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성향은 경시의 자세와 ‘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음’의 자세를 수반하는데 가히 가학적이고 반사회적이다. 그 이유는 불안과 무식을 감추려는 노력에 기인한다. 여성성 콤플렉스는 여성의 역할에 반대하는 항의를 부분적으로 감추고 있지만 그 근원은 어머니에 대한 공포이다. 왜냐하면 소년은 어머니 안에 있는 아버지 페니스, 아이들, 여성적 생식기를 빼앗고 싶어 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여성에 대한 남성의 경쟁은 다른 남성들과의 경쟁보다 훨씬 더 반사회적인지 알 수 있다. 이렇듯, 여성과의 경쟁은 남성의 생식기적 입장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다.

여성성 콤플렉스는 일상에서 가부장적 문화나 마초적(남성우월주의적) 성향에서 쉽게 관찰된다. 그러나 특히 우리 소설의 경우, 아내가 왜 세계보건기구의 의사 이름 명단에 장클로드란 이름이 없냐고 묻자 남편이 답하기를 거부하는 자세에서도 부분적으로 엿볼 수 있다. 즉, 여성이 남성인 자신보다 무엇을 더 많이 알아 자신이 강요한 지식만을 따르지

6) Mary Chadwick, *Die Wurgel des Wissensbegierde*, vol. XI, I.Z.P.A., 1925.

않는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기에 그는 곧 아내를 죽인다. 다른 동료들보다도 자신의 아내가 비밀의 내막을 알게 되려 할 때 장 클로드의 아내, 즉 여성에 대한 가학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적』의 장 클로드의 경우는 자신의 패배나 약점을 인정하지 못하고 은폐하는 정도가 엄청나다. 클라인에 따르면, 다른 남성들과의 경쟁 시에 한 남성이 맺는 다른 남성들과의 관계는 아동기의 가학적 고착의 양에 따른다고 한다. 장클로드가 사회 경쟁시 다른 남성들에 대해 어느 정도로 폭력적 자세를 취하는지 작품이나 실지로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거짓말, 사기를 통해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려는 수동적 가학성은 짐작할 수 있다. 자신의 결점을 감추고 은폐하여 자신의 능력을 과대포장하는 성향은 거의 모든 남성에게 있다. 그것은 다른 남성들과의 경쟁이란 요소 외에도 '여성성 콤플렉스'가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실지로 현실이 어떤지를 인정하는 일보다 자신이 옳음을 내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반면, 마리에게는 실지로 현실이 어떤지 인정하는 일보다 자신의 행복요건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소년의 경우 '여성성 단계' 이후 리비도의 전(前)생식기적 입장(즉, 구순/항문적 시기)과 생식기적 입장 사이의 투쟁이 이어진다. 그리하여 3-4세 쯤 '여성성 단계'와 관련된 불안은 아버지에게로의 동일시로 나타난다. 이는 항문-가학적 욕동에 대한 억압과 과대보상을 야기하지 그것의 패배를 야기하진 않는다. 아버지에게 의한 거세 공포는 가학적 단계에의 고착을 강화시킨다. 제도적 생식성은 생식 단계로의 상승적 발전에 있어 유리한 출구 역할을 한다. 완전한 권력예로의 접근과 생식적 입장에로의 상륙은 그러므로 부분적으로는 여성성 단계를 잘 마무리하였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 과대 보상과 가학적 단계에로의 고착 그리고 (장 클로드가 제대로 도달하지 못한) 완전한 권력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여성성 단계를 순조롭게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다.

2) 〈사랑의 추억〉에서 마리의 경우

불안, 죄의식, 우울적 감성은 아이의 감정 생활을 이룬다. 이 세가지 감성은 장클로드와 마리의 감성과도 관계가 있다. 소녀의 오디푸스적 발달은 소년의 발달 선상과 많이 일치한다. 그러나 소녀의 오디푸스 콤플렉스의 특징적, 핵심적 특징(멜라니 클라인 41-49)에서 (장 클로드와 구분되는) 마리의 심리적 특징이 더욱 선명히 드러난다.

‘여성성 콤플렉스’로 인한 결점 은폐, 능력 과시의 경향이 과연, 여성인 마리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랑하는 대상 혹은 자신의 결점이나 능력이 타인에게 어떻게 비추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마리는 별로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⁷⁾ 마리는 ‘남편의 죽음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자신의 좌절만회의 수단을 타인들에게 주입시키려는 의도도 없다는 점에서 장 클로드와 구분된다. 자신에게 남편이 어떤 의미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이상화하는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장 클로드의 자기 행각은 주로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대포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위의 ‘여성성 콤플렉스’에서 본 것처럼 자신의 페니스를 나르시시적으로 과대평가하는 아동기적 무의식의 연장선 상에 있다. 반면 마리의 환상은 나르시시적 자아보다는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욕망이 짙고 유일하고 지속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향해 있다. 이렇게 두드러진 차이점이 어디서 왔는 나르역시 멜라니 클라인의 발견에서 보도록 하자.

(1) 소유 욕망과 경탄 - 페니스를 과대평가함

젖떼기 이후 소녀는 어머니로부터 등을 돌렸다. 항문적 좌절을 겪었기에 더욱 더 그럴 수 밖에 없다. 이제 생식기적 경향이 심리적 발달에 작동하기 시작한다. 헬렌 도이치에 의하면, 구순적 리비도가 생식기적

7) 이러한 차이점은 두 주인공에서 보이는 차이를 넘어서 일상에서 통계적으로 관찰되는, 성별 차이점이기도 하다.

리비도로 옮겨갈 때 여성의 생식기적 발달이 완성된다고 한다.⁸⁾ 여아의 생식기적 감각이 보다 강해지면 여성 생식기의 수용적 성질에 부합하여 아버지의 페니스를 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일깨워진다. 아이를 주는 페니스는 아이와도 동일시되어 어린소녀에게 페니스는 커다란 욕망과 감탄, 찬미의 대상이 된다. 행복의 근원이며 좋은 현재의 근원으로서의 페니스와의 관계는 좋은 짓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관계에 의해 강화된다.

성인이 된 마리의 리비도적 대상은 나르시스적 자신이 아닌, 페니스이다. 휴가 이후에도 계속 아파트에 남편이 나타날 때마다 보여지는 마리의 행복한 모습에서 남편은 ‘행복의 근원이며 좋은 현재의 근원’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페니스 소유와 직결된 삽입의 입장과 반대인, 여성 생식기의 수용적 성질에 부합하여 마리의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커다란 욕망과 경탄, 찬미의 대상’인 남편이기에 죽음 후에도 좀처럼 사라질 수 없는 것이다.

소녀의 경우, 아버지로서의 동일시는 어머니로서의 동일시보다 훨씬 더 적은 불안을 수반한다. 어머니와 소녀의 관계는 아버지와 소녀의 관계에 긍정적이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향방을 제공해 준다. 즉 아버지로 인해 겪는 좌절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이미 겪은 실연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야기한 증오와 욕망이 바로 아버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에 강력한 동기가 된다. 가학적 고착이 지배적인 경우 이러한 증오와 과대보상(즉 아버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은 이후 여성이 남

8) Helene Deutsch, *Psychoanalyse des fonctions sexuelles de la femme*, traduit de l'anglais par Pierre-Emmanuel Dauzat (Traduit de *Psychoanalysis of the sexual functions of women*), Paris :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4. “구순적 리비도가 성공적으로 생식기로 옮겨졌을 때 여성 생식기의 발달이 완성된다.”라는 헬렌 도이치의 의견에 멜라니 클라인도 찬성한다고 말하고 있다.(41) 단 클라인의 임상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이전은 생식기 경향의 초기 움직임이 있을 때 이미 시작되기 때문에 생식기의 구순적 목적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소녀가 아버지에게로 향한다고 한다.

성들과 맺는 관계에서 심오한 역할을 하게 된다.

마리가 특히 가학적 고착이 지배적이어서 남편에 대한 소유욕이 커진 것이라고 단정지를 수는 없다. 죽음이란 특수한 어쩌면 극단적인 상황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쨌든 죽음 후에도 '남편이 존재해야 한다.'는 욕망이 환각을 지어낼 정도라면 그 배경에는 리비도적 대상에 대한 소유 욕망이 크게 자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엔 오디푸스 시기에 형성된 여아의 무의식적 심리구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장 클로드의 경우 자신의 명성과 허울이 소유의 대상이지, 아내나 타인이 일차적으로 경탄적 소유의 대상은 아닌 것 같다. 아내에게,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사랑을 얻고(=이차적 소유)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자신을 이상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상화의 대상, 소유의 대상이 마리의 경우는 남편에게로 향해 있고 장 클로드의 경우에는 자신에게로 향해 있다.⁹⁾

장 장 클로드 (남성) -	마리 (여성) -
'내가 페니스를 가지고 있음'이 중요함 = 나의 능력 (직업)이 리비도적 대상물임	'페니스 가진 상대를 소유함'이 중요함 = 상대의 경탄스런 활동이 리비도적 대상물임
페니스임 (être le phallus) ¹⁰⁾	페니스를 소유함 (avoir le phallus) ¹¹⁾
소유의 주체는 나 자신이다 (on est ce qui a) ¹²⁾	존재하고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on a ce qui est) ¹³⁾

자신의 여성성이 손실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어린 소녀의 거세 콤플

9) 보통 여성들이 남성의 팔짱을 낄 때 소유적인 제스처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반면 남성은 앞을 향해 보고 걸거나 여성을 팔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쪽이다. 여성 소유의 의미도 대상으로 향한다기 보단 자신의 소유물의 일부로 여성을 여기거나 여성이 자신의 자부심이나 자존심과 결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 Paul-Laurent Assoun, *Masculin et Féminin*, Paris: ECONOMICA/Anthropos, 2007, 80, 95.

11) *Ibid.*, 80, 95.

12) *Ibid.*, 80, 95.

13) *Ibid.*, 80, 95.

렉스에 심오한 영향을 끼친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으로 인해 소녀는 자신에겐 없는 페니스를 과대평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대평가는 여성성이 손상당하는 위험보다 더 명백히 눈에 뜨인다.

영화 <사랑의 추억>이 사라진 리비도적 대상에 대한 경탄, 이상화가 주된 분위기를 이루고 있다면 소설 『적』은 항상 자신의 결점이 노출될까 봐 고심하고 동시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주인공의 번민으로 점철되어 있다. 분명, 마리에겐 거세 콤플렉스보다는 페니스 과대평가가 눈에 띄고 장 클로드에겐 (페니스 과대평가에서 나온) 자신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세콤플렉스가 우선적이다.

소녀가 어머니와 맺는 관계가 훨씬 더 긍정적이어서 그러한 관계가 생식기적 입장에 세워진다면 그 여성은 그녀의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지만, 남편에 대한 사랑은 상당히 강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성에게 있어 남편은 항상 그리고 동시에 어머니-원하는 것을 주고 귀여운 아기를 주는 존재-를 상징하는 전형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토대 위에서 아버지와의 배타적으로 연결된 관계가 세워진다. 그 배타적 관계는 성교시의 페니스의 활동에 우선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페니스의 이러한 활동은 이전의 구순적, 항문적 입장과 마찬가지로 욕망들을 충족시켜준다. 왜냐하면 그 욕망들은 이제 생식기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페니스의 활동은 소녀의 눈에 가장 완벽한 수훈, 위업으로 보인다.

마리가 남편을 그리도 이상화시키는 이유는 소녀의 ‘가장 완벽한 수훈, 위업’이란 무의식적 심리 구도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새로 다가오는 남자 친구도 마리에겐 남편에 비해 상대가 되지 않는 존재이다. 죽은 남편을 이젠 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느냐는 남자친구의 말에 마리는 대꾸한다: “사실을 알고 싶어? 너는 상대도 되지 않는다고! (Tu veux la vérité? Tu ne fais pas le poids !) ”

소녀의 경탄은 오디푸스적 좌절에 의해 흔들리긴 하지만 그것이 증오로 바뀌지 않는 이상 그 경탄은 이후 여성이 남성들과 맺는 관계에서 근본적인 양상이 된다. 그 다음 사랑의 경향이 충만히 만족되었을 때 좌절이 긴 만큼 감사하는 마음도 크게 되어 경탄에 첨가된다. 이러한 감사의 자세는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유일한 사랑의 대상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가장 커다란 능력으로 표현된다.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유일한 사랑의 대상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능력’은 비단 마리의 경우만은 아닐 것이다. 모든 여성들에게 공통됨이 분명한 이러한 여성적 능력은 어쩐지 남성에게 붙여졌을 때 뭔가가 어울리지 않는 듯하다. 생식기 이후 오디푸스적 무의식 형성에서부터 이미 구별되기 시작하는 남, 여의 차이는 이렇듯 사고방식의 차이를 만들고 그것은 성인들의 자세를 통계적으로 관찰해 보았을 때 실증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이기도 하다.

(2) 도달되지 않는 이상형

아버지의 페니스와 아이들을 지녀 감추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소년의 욕망은 양성(陽性)적 오디푸스 콤플렉스의 요소이다. 그에 반해, 어머니에 대한 욕망은 소녀에게 있어서는 음성적(전도된 *inversé*) 오디푸스 상황이다. 이러한 소녀의 욕망은 그녀의 성적, 감정적 발달 전체에서 핵심적인 요소들 중의 하나로서, 그녀가 어머니 역할을 하거나 성적 관계를 할 때 어머니와의 동일시에 심오하게 작용한다.

“페니스를 받고자 하는 욕망¹⁴⁾은 자신의 여성적 입장에서 겪은 좌절에 의해 심화되고 또한 양성(陽性)적 오디푸스 상황에서 느낀 불안과 죄의식에 의해 심화된다”(Mélanie Klein, *Le complexe d'Œdipe* 135). 마

14) 마리는 남편을 동경하지만 장 클로드를 아내를 동경하진 않고 자기 자신의 능력에 관심을 가질 뿐이다.

리가 그리도 동경하는 남편, 즉, “페니스에 대한 욕망은 아버지 옆에 앉아 어머니 자리를 차지하고 아버지의 아이들을 받고자 하는 소녀의 좌절된 욕망을 포함, 은폐한다”(Melanie Klein, *Le complexe d'OEdipe* 135).

가학적-항문적 수준이 지배적 단계인 어머니에의 철이른 동일시의 시기로부터 어린 소녀는 미움과 질투를 끄집어내어 어머니 이마고(이미지)에 기초한 잔인한 초자아를 구성한다. 소년도 소녀와 같이 '여성성 단계'로부터 모계적 초자아를 구성한다. 그 모계적 초자아로 인해 소년도 소녀처럼 그 잔인성에서 볼 때 원시적인 동일시 혹은 호의를 가진 동일시를 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소년은 아버지로서의 동일시를 다시 취하게 된다. 물론 개인마다 다양한 정도차는 있다. 초자아 형성에 있어서 어머니의 모습이 주는 영향이 크긴 하지만 여기서는 처음부터 부계적 초자아가 결정적 힘을 발휘한다. 여기서도 우세한 존재 이미지 모델이 제안되는데 소년은 실제로 이상으로서의 아버지의 이미지로 창조된 존재이기에 이상형은 소년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은 남성의 창조적 작업을 지지하고 객관적으로 만드는데 공헌하고 있다.

소녀의 경우 이 단계에서 아버지로서의 동일시에서 나오는 초자아 역시 위협적이며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불안은 어머니로서의 동일시에서 나오는 불안에 견줄 바가 못된다. 그런데 어머니와의 동일시가 생식기적 기초 위에서 성립될수록 후하고 이상적인 어머니의 희생, 애정의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 긍정적인 애정의 자세는 그러므로 전생식기적 특징들과 생식기적 특징들 사이의 비율에 달린 것이다. 생식기적 특징들은 모성적 어머니의 이상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애정적 자세를 사회적 활동이나 다른 활동으로 전환할 때에는 부계적 자아의 이상형이 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란 이상형은 소년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대로 만들어 졌기에 그 이상형은 소년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반면, 아버지의 생식기의

활동에 대해 소녀가 느끼는 깊은 경탄은 부계적 초자아를 형성하게 되고 그 초자아는 소녀가 절대로 충만히 도달할 수 없는 활동적 목표를 제안한다”(Mélanie Klein, *Le complexe d'Œdipe* 48).

장클로드의 자신의 이상형에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도달하고자 한다. 그 사기행각이 밝혀져 자신이 동일시한 구축물이 무너질 즈음에는 자신도 존재하지 않고 자신과 결부된 아무도 존재해서는 안 될 정도로 그것은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면, 마리는 죽은 남편을 환상으로라도 만들어 낸다. 그러나 어쩐지 절대로 충만히 도달하지 못하는 모양이다.¹⁵⁾ 그래서인지 마리는 해변가에서 계속 달려도 잡힐 것 같지 않은 남편을 향해 끝없이 달려간다.

(3) 복합성과 혼란

생식기의 구순적 목적은 수용(收用)적이기에 결정적으로 소녀는 아버지에게로 향한다. 여기서 프로이드 이론에는 없는, 클라인의 발견은 다음과 같다: “오디푸스적 경향이 생길 때 바로 질과 질 안에 대한 그리고 다른 생식기에 대한 무의식적 앓이 깨어난다. 하지만 소녀들에게 있어 자위는 소년들에게 있어서 만큼의 흥분이나 적합한 결과를 제공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억압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여성의 성발달에 복합성과 혼란이 부가로 덧붙여지는 원인이 된다”(Le complexe d'Œdipe 41).

남성 자위의 흥분과 적합한 결과는 장 클로드의 경우에서처럼 자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거짓말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마리의 행적은 과연 억압으로 인한 ‘복합성과 혼란’으로 점철되어 있다: 남편이 계속 살아 있

15) 적어도 마리의 경우는 이러하다. 그러나 다른 경우의 여성의 성취를 클라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만일 발달상 어떤 요소들 덕으로 소녀가 이 목적에 도달하기 충분할 만큼 강렬한 자극제를 소유하게 되면 거기에 도달하기 불가능했던 것에 노력에 의해 어떤 권력이 주어진다. 그 권력은 모계적 초자아에 속하는 희생능력과 결합하여 어떤 여성들에겐 특정한 분야나 직관적인 면에서 훌륭한 행위를 완수하는 능력이 된다.” (Le complexe d'Œdipe 48)

는데 새로운 남자 친구를 만나고 그 얘기를 집의 남편에게 하는 것은 매우 혼란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남편은 과연 살아 있는가? 남편의 카드 사용이 거절되고 친구들은 남편을 잊어버리라고 말한다. 그래도 마리 곁에는 남편이 계속 살아 있다. 구조처에서 남편의 사체에 차여 있던 손목 시계가 역시 장의 것이었음을 확실히 알아 볼 수록 마리는 그것이 죽은 남편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이 모든 것은 명확하기 보다는 모순적이고 복잡하다.

(4) 모호하고 불확실한 감정

소년이 실제로 페니스를 소유하여 그것을 주제로 아버지와 경쟁 관계에 들어가는 반면 소녀는 모성성에 대한 욕망이 불충족 되어, 강렬함에도 불구하고 모호하고 불확실한 감정만 가질 뿐이다. 그 점을 클라인은 소녀들의 발달 단계가 더 불리한 이유라고 말한다(*Le complexe d'OEdipe* 45).

미래의 모성성에 대한 희망을 흘뜨리는 것은 이런 불확실함 뿐만이 아니다. 바로 불안과 죄의식이 그 희망을 약하게 만들어 여성에 따라서는 모성적 자세를 심각하게 결정적으로 상처 입힐 수 있다. 어머니와 그 배속의 생식기, 아기를 모조리 파괴하고자 하는 성향에서 불안과 죄의식이 오고 그 결과로 자신의 생식기관들과 아기들이 파괴되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과 죄의식이 바로 여성의 모성적 역할에 대한 긍지와 기쁨을 억압하는 주원인이 된다. 그래서 소녀는 강력한 지지물을 빼앗기는 반면 소년은 페니스를 소유함으로써 지지물을 가진다. 여성성에 대한 소녀의 강렬한 불안은 소년의 거세공포와 맞먹는다. 왜냐하면 그 불안이 바로 오디푸스적 경향을 억압하는데 한몫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소년의 불안이 부계적 초자아에 의해 일깨워짐에 반해, 소녀의 불안은 모계적 초자아에 의해 일깨워진다(Mélanie Klein,

Le complexe d'Oedipe 46). 프로이드에 의하면, 소녀의 초자아는 소년의 초자아와는 다른 노선으로 발전한다. 남성의 인생에서 보다 여성의 인생에서 질투가 보다 더 큰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수컷에 대한 질투가 우회된 것이며 그 목적물은 페니스다.

실제로 장 클로드의 거짓말과 사기는 다른 동료들과의 경쟁을 함축하고 있다. 그것은 매우 확실하고 선명하게 현실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다. 반면 마리의 처신이나 인식 양상은 불확실하고 모호함 투성이다. 그 예는 수없이 많다: 휴가지에서 남편 없이 하룻밤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남편은 계속 아파트에 있다. 그렇게 남편은 있다고 믿는데도 남자친구 뺑상을 만난다. 뺑상의 메시지에 전화번호를 받아 적다 문득 남편의 목소리가 들린다. 뺑상에게 뺑을 발라주는 등 남편에게 하던 습관을 그대로 해주는가 하면 남자친구와 동침할 때 남편을 본다. 가장 친한 친구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이 남편의 죽음을 말하는데도 마리는 막연히 남편의 존재를 계속 믿는다. 카드 사용이 거절되고 이상한데도 남편이 죽었느냐, 살아있는냐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 아파트를 살 때 남편과 상의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창문으로 묘지가 가까이 보이는 아파트임을 알고는 기절한다. 시체가 확인되었다는 구조처의 전화 메시지를 들은 이후 남편 장을 부르며 방으로 들어간다. 점진적으로 분명한 사망의 증거-수영공속 시계접 앞에서 오히려 그 시계는 아니라고 부인한다. 수영공은 남편의 것이라고 한 것과 말이 안 맞는다. 그것이 유전자 감식에 의해 죽은자가 남편임이 확실히 드러났고, 시체까지 보고 난 후이니 상당히 모순적이다. 마지막 해변에서, 너무도 분명한 남편의 사망 사실 앞에서 드디어 눈물을 짓지만 또 멀리 보이는 남편의 모습에 달려간다. 이렇듯, 마리는 모든 상황을 분명히 구분짓지 않고 모호하고 불확실한 감정을 계속 유지해 나아간다.

소녀에게 있어 페니스에 대한 거세 불안은 급성적이다. 페니스가 잘 보이는 것이기에 소녀의 불안과는 다르다. 반면, 소녀(안에 자리한 생식

기들에 대한)의 불안은 만성적이다(Mélanie Klein, *Le complexe d'OEdipe* 46). 왜냐하면 그 생식기들은 안 보이기 때문에 소녀들에게 덜 친근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장클로드와 마리의 불안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불안이 그 성격이 다름을 가늠할 수 있다. 소설 내내 그리고 영화에서도 장클로드의 불안은 그 실체(의사가 아니라 사실)가 밝혀지는 일)가 명백하여 어느 때라도 닥칠 수 있는 거세불안이다. 반면 마리의 불안은 남편이 항상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여 모호하고 항시적이다.

(5) 소녀의 주된 불안 상황

남아가 어머니 젖에 대한 리비도적 욕망과 사랑의 일부를 (젖을 여전히 좋은 대상으로 유지하면서) 아버지의 페니스로 돌릴 수 있게 되면, 아버지의 페니스는 남아의 정신 속에서 좋고 창조적인 기관의 모습을 띄게 된다. 그 기관으로부터 남아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처럼 리비도적 충족과 아이들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Mélanie Klein, *Le complexe d'OEdipe* 130). 남아가 아버지 페니스와 비견되는 페니스를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힘에 대한 희망이 굳건히 됨에 반해 여아는 자신이 과연 어머니처럼 앞으로 아이들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 수단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게다가 거기에 잘 안보이는 자신의 생식 기관들로 인해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내용물에 대해 더욱 커지는 불안을 갖는다. 그러한 불안으로 인하여 여아는 어머니로부터 아이들도 빼앗고 아버지 페니스도 빼앗는다. 같은 불안이 이젠 복수하는 외적, 내적 어머니가 자신 안의 좋은 내용물들을 공격하여 빼앗아 가면 어쩌나 하고 공포를 증가시킨다(Mélanie Klein, *Le complexe d'OEdipe* 135).

여아의 오디푸스적 경쟁심은 주로 어머니에게서 아버지의 페니스도 빼앗고 아이들도 빼앗는 것으로 표현된다. 여아는 복수하는 나쁜 어머니

에 의해 자신의 몸이 공격당하고, 자신 안의 좋은 대상물들이 상처나거나 탈취되는 것을 보게 될까봐 두려워한다(Mélanie Klein, *Le complexe d'Œdipe* 135).

다른 사람들이 남편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마리에겐 자신 안의 좋은 대상물인 남편의 이미지가 상처나거나 탈취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마리는 남편의 실종을 목격한 사람(구조 대원)과의 만남을 피하거나 그에게 공격적으로 부인하는가 하면, 남편의 계좌를 쓸 수 없다는 말에 남편 장에게 말해봐야겠다고 대답함으로써 ‘좋은 대상물’인 남편을 박탈당함에 대한 두려움에 자기 방어를 한다. 남편의 죽음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남편이 차고 있던 시계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공포에 현실부정을 하는 것으로 자기방어를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한 두려움은 여아의 불안에서 지속적이고 충격적인 역할을 한다. 바로 이러한 점이 내가 본 바에 의하면 소녀의 주된 불안 상황이다”(Mélanie Klein, *Le complexe d'Œdipe* 135).

(6) 자신의 세계와 내적 대상물들 주위에 세워지는 환상과 감정

“여아의 생식기적 발달은 아버니의 페니스를 받는 여성적 욕망에 중심되어진다. 그리고 그녀의 주된 걱정은 상상적 아이들에 관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여아의 발달에 특수한 성격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아의 환상과 감정은 자신의 세계주위와 내적인 대상물들 주위에 세워진다”(Mélanie Klein, *Le complexe d'Œdipe* 135). 그렇기에 마리의 환상과 남편에 대한 감정은 아파트 안으로 상징되는 자신의 세계 주위와 내적 감각에 세워지고 있다. 장 클로드의 거짓말이 밖의 타인에게 과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요 방향성인 것과 차이가 있다.

“여성의 감성적 일생에서 그녀의 내적 세계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여성은 이 내적 세계를 좋은 대상물들로 채우고자 하는 절박한 필요를 느낀

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내부로의 투사(introjection)과정이 왜 강렬한지를 설명해 준다. 이 내부로의 투사 과정은 여성 생식기의 수용적 성질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Mélanie Klein, *Le complexe d'OEdipe* 135). ‘혼자만의 환상’이란 내적 세계를 마리는 남편과의 다정한 대화 등 ‘좋은 대상물들’로 채운다. 외부 세계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장클로드와 반대되는 면이다.

“소녀의 감성적 일생에서 내적 세계가 우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필요와 다른 이들과의 사랑은 외부 세계에 큰 의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은 표면적일 뿐이다. 왜냐하면 외부세계에 대한 의존은 자신의 내면적 세계에서 일단 안도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 강화되기 때문이다”(Mélanie Klein, *Le complexe d'OEdipe* 137). 마리에게 있어 외부 세계란 남편이란 존재이다. 남편이 없으면 사랑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남편의 죽음 이후에도 그녀는 계속 직업 생활을 하고 명랑하게 친구집에 초대되거나 남자친구를 사귀기도 하는 등 외부세계에의 의존을 보인다. 그러나 그 모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반, 본질적인 것은 어디까지나 남편과 맺는 내적세계이다. 남편의 존재로 대표되는 내부 세계에서 일단 안도할 수 있는 것이다. 빈 아파트에서 마리는 남편이 보일 때마다 기뻐하며 안도한다. 장클로드가 혼자만의 고심으로 허위세계를 날조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독립된 면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내적세계의 행복 보다는 외부세계에 보이고 외부세계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일차적이다.

4. 맺는 말

본 논문이 주로 참고로 한 연구의 저자인 멜라니 클라인은 특히 어린 아동들의 심리를 연구한 아동정신분석학의 선구자이다: “욕망의 객체와

의 관계는 인생의 첫 시작부터 존재한다. 그것은 강도 높은 환상을 만들어 낸다. 좌절되고 헐박받으며 철이른 불안으로 점령당하며 파괴적 성향으로 동요되고 복수의 두려움으로 잠식당한 유아기의 자아(moi)는 자신을 방어하게 된다”(Mélanie Klein, *Le complexe d'OEdipe* 7, 148). 그 당시 행해지고 있던 것처럼 성인 치료에서 시작하여 오디푸스 콤플렉스라는 단편 사실을 확대 적용한 것이 아니라 클라인은 직접 아이들 치료에서 시작하여 아동들에게 있어 오디푸스 콤플렉스가 얼마나 자명한 사실인지를 알게 되었다. 자신이 어린 소녀로 동일시되어 클라인은 여성의 시각에서 오디푸스를 보았다. 프로이트도 어린 소녀의 전-오디푸스적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관하였지만 그저 그리스 문명에 가리워진 미노에-미세니 문명을 발견한 것처럼 오디푸스의 남근중심적 시각에 머물고 말았다. 클라인은 이 남근 우위가 지배하는 모델에서 나와 소녀에게 특수한 불안을 묘사하는 혁명적 변화를 도입하였다.¹⁶⁾

멜라니 클라인은 여성의 성에 대한 프로이트적 개념을 전적으로 다시 고쳐서 보고 있다. 프로이트가 여성의 오디푸스 콤플렉스를, 소년의 오디푸스 콤플렉스가 수정된 불완전한 것으로 보는데 클라인은 그러한 입장에서 전적으로 궤도를 달리하여 소녀와 소년의 오디푸스 콤플렉스를 구분하였다. 그 계기는 여아 리타를 매일 보면서 치료한 데서 비롯되었다(*Le complexe d'OEdipe* 20). 그러면서 여성의 성에 대한 대담한 진보를 제시하고 있다. 여성성이란 남성성에 추가로 부여되는 특성도 아니고 남성성을 보충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여성성일 뿐이다. “두 성에 있어 똑같은 그리고 유일한 리비도를 상징한 프로이트의 가정, 그리고 남근우위적인 그 리비도의 이후 발달을 전개하는 프로이트의 가정”(Wladimir Granoff, *Le désir et le féminin* 59)은 프로이트 역시 남성의 입장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16) 그리고 그 내용은 소녀의 거세 불안 등 우리가 본문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고 하여 클라인의 요지가 프로이드의 작업을 뒤엎는 것은 아니다. 단지 오디푸스적 갈등의 시작 단계들이 전생식적 단계들에 의해 강하게 지배받아서 생식기적 단계가 활동하기 시작할 무렵에 생식기적 단계는 두꺼운 막에 가려져 있다는 것이다. 생식기적 단계는 이후 3-5세 사이에 분명히 확인된다. 이 연령대에는 오디푸스 콤플렉스와 초자아 형성이 정점에 도달한다. 그러나 오디푸스적 경향이 철 이르게 나타나는 것; 전생식기적 단계들에서 짓이겨 누르는 죄의식의 무게와 그렇게도 이른 나이에 오디푸스적 발달과 초자아의 발달에 행사하는 결정적 작동; 그렇기에 이후 그 개인의 성격, 성, 모든 발달에 미치는 결정적 작동들; 이 모든 것이 여태까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엄청난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Le complexe d'OEdipe* 49). “인생을 결정짓는”(*Le complexe d'OEdipe* 25) 심리형성이 매우 어릴 적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녀가 묘사하는 오디푸스적 철이른 단계는 이후 성인이 되어서의 심리발달상의 역동성을 훌륭히 증명해 주고 있다.

멜라니 클라인은 말한다. “이러한 지식들이 치료 효과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아이들의 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아이들의 분석에서만 그치지 않고 성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오디푸스 콤플렉스 지식에서 나오는 결론들을 시험해 보았다. 그 결과 이 이론의 정확성은 물론 그 치료 효과적 중요성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Le complexe d'OEdipe* 51).

이렇듯 우리는 프로이드로부터 비롯한 발견이 이후 후세학자들에 의하여 계승, 진보, 수정된 이론에 힘입어 두 주인공의 경우를 분석할 수 있었다. 장 클로드와 마리의 경우가 모든 남성과 여성의 경우를 대변한다고 절대화 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남, 여 심리기능상의 차이를 드러내는 데 있어 시사점이 많다. 또한 멜라니 클라인의 관찰이 두 주인공 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의 주인공, 더 나아가 일상의 경우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적용되어 끝없는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이 있을 것을 기대해

본다.

남녀의 특성과 차이점을 잘 아는 일은 상호적으로 인류의 행복과 진보에 조금이라도 공헌할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그 특성은 아동기의 신체적 발달이 정신 발달과 맞물려 진행됨에서 비롯함을 우리는 오디푸스 콤플렉스를 통하여 보았다.

참고문헌

- 엠마누엘 카레르. 『적』. 윤정임 옮김. 파주: 열린책들, 2005.
- 이선우. 「Francois Ozon 영화의 섹슈얼리티 재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2008.
- 이송이. 「가족의 위반에서 장르의 위반으로: 뤼스 이리가레 Luce Irigaray의 페미니즘 이론을 통하여 본 프랑수아 오종 Francois Ozon의 〈스위밍 풀 Swimming Pool〉과 〈8명의 여인들 8 femmes〉」. 『프랑스문화예술연구』 9.3.21(2007): 399-421.
- André, Jacques. *Aux origines féminines de la sexualité*. Paris: PUF, 2007.
- Anzieu, Annie. *La femme sans qualité, Esquisse psychanalytique de la féminité*. Paris: Dunod, 2004.
- Assoun, Paul-Laurent. *Masculin et Féminin*. Paris: ECONOMICA/Anthropos, 2007.
- Blouin, Patric., "La place du mort." *Cahiers du cinéma*, 554(Février 2001): 76-78.
- Carrère, Émmanuel. *L'Adversaire*, Paris: Éditions P.O.L. éditeur, 2000, Gallimard, 2003.
- Chartier, Jean-Pierre. *Introduction à la pensée freudienne*. Paris: Payot, 1993, 2001.
- Eisenreich, Pierre. "Sous le sable." *Positif*, 480(Février 2001): 25-26.
- Freud, Sigmund. *Introduction à la psychanalyse*. Collection Petite bibliothèque, Paris: Payot, 2001.

- _____. directeurs de la publication André Bourguignon, Pierre Cotet ; directeur scientifique Jean Laplanche ; traduit de l'allemand [par Janine Altounian, André Bourguignon, Pierre Cotet...et al.]. *Oeuvres complètes : Psychanalyse*. Volume XII. 1913-1914.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2005 (Contient Le Moïse de Michel-Ange, Histoire du mouvement psychanalytique Pour introduire le narcissisme Ecrits techniques)
- Granoff, Wladimir. *La pensée et le féminin*, Paris: Flammarion, 2004.
- _____. *Le désir et le féminin*, et François Perrier. Paris: Champs Flammarion, 1991.
- Helene Deutsch. *Psychanalyse des fonctions sexuelles de la femme*, traduit de l'anglais par Pierre-Emmanuel Dauzat (Traduit de *Psychoanalysis of the sexual functions of women*),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4.
- Klein, Mélanie. *Le complexe d'Edipe*. Paris: Éditions Payot & Rivages, 2006.
- _____. *Le transfert et autres écrits*. inédits de Mélanie Klein / Mélanie Klein ; textes trad. de l'anglais par Claude Vincent,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2001.
- Leader, Darian. *La question du genre*. Paris: Payot, 2001.

Some things in Common and Differences in the
Mental Development of the Man and Woman
Appearing in *Adversary* and *Under the Sand*

Oh Jungmin
(Duksung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reveal some things in common and differences in a psychological matter, that are analyzed in the whereabouts of a hero in Émmanuel Carrère's novel *Adversary* and of a heroine in Ozon's film *Under the Sand*. In particular, two main characters show tendencies of regression and fixation, so they are not free from a libido object in their past. In terms of the root cause of this psychology of reality denial that stops them from advancing toward life's next step, its prototype already exists in the unconscious structure that is the reparation of the damage and frustration for a childishly loved object or the defense against the anxiety of being deprived. This unconscious psychological structure is due to the frustration of the mouth and lips represented by a weaned child and the anal frustration represented by the study of cleanness, and an Oedipus tendency is generated from this. This occurs at three to five years, according to Sigmund Freud, and around the end of one year or at the beginning of two years, according to Melanie Klein. This

period corresponds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genital phase that are common to baby girl and baby boy.

A boy mixes the desire to have a baby and an awareness of a loving tendency due to the feminine complex encountered by a baby boy. Therefore, the feelings about his own disadvantage are hidden, and he tries to overcompensate by the sense of superiority derived from the fact that "I have a penis." This point is an unconscious structure equated on the hidden side of a hero's lie and fraud. On the other hand, a masculine tendency that consists of one's own overestimation is not observed in a heroine. Instead, the heroine's behavior is characterized by complexity and confusion; ambiguous and uncertain emotion; and illusion and feelings built around one's own world and internal objects.

주제어: 만회(reparation), 고착(fixation), 여성성 콤플렉스(feminine complex), 페니스 과대평가(overestimation of a penis), 소녀의 불안 상황(a girl's main anxious condition)

논문제출일: 2010. 04. 15

심사완료일: 2010. 05. 01

게재확정일: 2010. 05. 01